

NS홈쇼핑이 21일 오후 5시20분 경남 밀양 농특산물 특집 방송을 진행한다.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얼음골사과는 당도 13브릭스 이상의 단맛과 함께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아라리쌀은 쫄쫄한 찰기와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밥을 지은 후 은은한 누룽지향을 느낄 수 있다. 정정욱 기자



이슈 | '웹툰·웹소설' 글로벌 콘텐츠 시장 공략 나선 인터넷 기업들

네이버 “세계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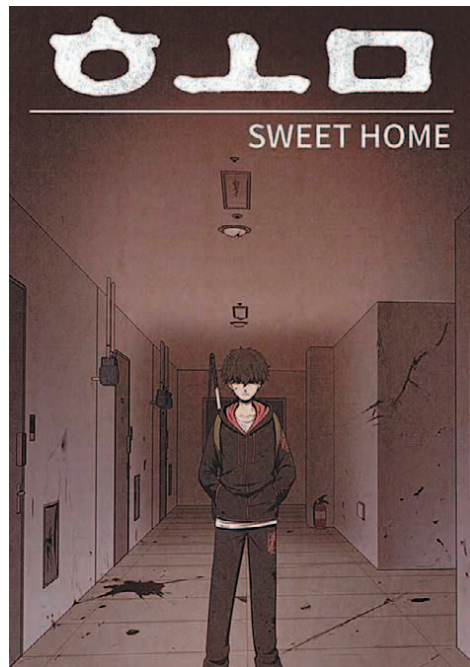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 인수
단순 합산시 1억6000만명 유저 확보
네이버웹툰IP 영상화 시너지 기대
카카오도 '픽코마'로 해외 공략 순항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

한국 인터넷 기업들이 웹소설과 웹툰 등 'K스토리텔링'으로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다. 관련 현지 기업을 인수해 영향력을 넓히고, 웹툰 지적재산권(IP) 활용 영상화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제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6억 달러(약 6600억 원)에 지분 100%를 사들일 예정이다. 상반기 내 한국, 미국, 캐나다 등 관련 기관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왓패드는 매월 9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230억 분을 사용하는 스토리텔링 플랫폼이다. 1500여 편의 작품이 출판과 영상물로 제작됐다. 네이버는 "네이버웹툰 월 사용자 수 7200만 명과 단순 합산할 경우 약 1억 6000만 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한 세계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 사업자가 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웹소설과 웹툰 등 'K스토리텔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재탄생한 '스위트홈', 영화로 제작되는 '유미의세포들', 드라마로 제작해 인기를 끌고 있는 '경이로운 소문' (왼쪽부터).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웹소설과 웹툰 등 'K스토리텔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재탄생한 '스위트홈', 영화로 제작되는 '유미의세포들', 드라마로 제작해 인기를 끌고 있는 '경이로운 소문' (왼쪽부터).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웹소설과 웹툰 등 'K스토리텔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재탄생한 '스위트홈', 영화로 제작되는 '유미의세포들', 드라마로 제작해 인기를 끌고 있는 '경이로운 소문' (왼쪽부터).

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네이버웹툰이 쌓아온 IP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해 왓패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왓패드에서 검증된 웹소설을 웹툰으로 제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개봉해 전세계 2200만 넷플릭스 유료 구독자가 시청한 네이버웹툰 기반의 '스위트홈' 등 영상화도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왓패드는 영상 사업을 하는 왓패드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스튜디오N과 시너지가 기대된다. 네이버웹툰은 이에 앞서 웹툰 IP를 기반으로 미국 현지 작품 영상화를 확대하기 위해 버티고 엔터테인먼트 등과 파트너

십을 맺기도 했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왓패드를 통해 한층 더 다양한 글로벌 스토리텔링 IP를 확보하게 됐다"며 "왓패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기존에 네이버웹툰이 갖고 있는 IP의 다각화 역량이 강화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 등을 보유한 카카오도 외연을 넓히고 있다. '이태원 클라쓰'와 '경이로운 소문' 등이 영상화 돼 인기를 끈 가운데, 영화 시나리오에서 출발한 웹툰 '승리호'가 영화로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재팬의 만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픽코마'를 통한 일본 등 해외 시장 공략도 순항 중이다. 앱 분석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픽코마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양대 마켓 전 세계 만화 및 소설 앱 중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일본 진출 4년 만에 이런 성과를 올렸다.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도 마련했다. 카카오페이지는 북미 지역 웹툰 플랫폼 타파스미디어에 IP 공급을 본격화했다. 타파스는 2013년에 설립된 웹툰 플랫폼으로 월간이용자는 300만 명 이상이다. 카카오페이지는 지난해 11월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됐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몸값 5조’ 이베이코리아, 본격 매각 추진 “주주 위해 가치 극대화 검토”...e커머스 지각변동 예고



이베이코리아가 매각을 추진하면서 국내 e커머스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20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베이 본사는 "한국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며 "주주들을 위해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업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미국 본사가 이베이코리아 매각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매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베이코리아는 2019년 매출 1조954억 원, 영업이익은 615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업계에선 이례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업계는 이베이코리아의 몸값을 약 5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이날 전항일(사진)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 전 사장은 2018년 이베이재팬 대표로 취임해 2년 만에 실적을 두 배 이상 성장시킨 인물이다. 김명근 기자

윈스토어 “설립 5년만에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윈스토어가 지난해 설립 이후 처음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윈스토어는 2016년 창립 이후 약 5년 만에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며, 10분기 연속 거래액 성장을 달성한데 힘입은 결과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아이지 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기준으로 지난해 윈스토어의 거래액 성장률은 전년 대비 34.4%를 기록했다. 성장의 핵심 동력인 게임은 전년 대비 약 36% 상승한 거래액을 나타냈다.

김명근 기자

국세청, 대한항공 전격 특별 세무감사 착수

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해 전격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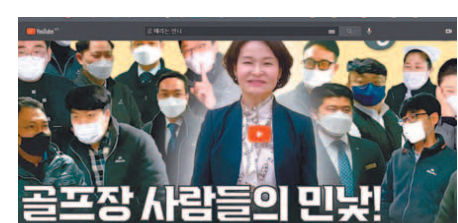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세무 회계 자료를 수집하고 대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선대 조양호 회장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와 관련된 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조양호 전 회장 별세한 이후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한진 부사장은 같은 해 10월 상속세를 신고했다.

조 회장 일가는 총 27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하고 있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해 한진칼 지분을 담보로 약 400억 원을 대출받아 이중 일부를 상속세 납부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연 블루원 대표, 유튜브 '공 때리는 언니' 활약



태영그룹 레저부문 계열사 블루원의 윤재연 대표가 '공 때리는 언니'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사진)는 골프 채널 크리에이터로도 활약하고 있다. 골프장과 콘도, 리조트, 워터파크 등을 운영하는 블루원은 직원들을 크리에이터로 양성하기 위해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재연 대표도 교육에 참가해 본인이 직접 '공 때리는 언니'라는 유튜브 골프 채널을 개설했다.

콘텐츠 기획부터 촬영, 제작 등 전 과정에 참여하고 실시간 댓글로 구독자와도 소통하고 있다. CEO의 권위보다 '공 때리는 언니'라는 친근한 부캐로 이용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골프를 싸게 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리는 '골프' 등 골프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를 많이 공개하고 있다. 특히 많은 골프 채널들이 스윙이나 레슨에만 치중하는 것과 달리 골프의 허세문화를 지적하면서 올바른 매너와 문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접느냐, 다시 펼치느냐?”...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 검토

6년 누적 적자로 매각 가능성 커
“사업 방향, 모든 가능성 열어둬”

LG전자가 아픈 손가락인 '스마트폰 사업'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LG전자는 20일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 매각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러 차례의 매각설에도 매년 새 제품과 전략을 내놓은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유지할 것'이란 전망과, 강한 부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봤을 때 '철수나 매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LG전자는 이날 "모바일 사업과 관련해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소부터 철수, 매각까지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병석 LG전자 사장은 본부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업 운영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고용은 유지되니 불안해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매각설이 나올 때만 해도 구조 조정을 할 것으로 봤지만, 이제는 실제 철수나 매각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6년 동안 누적된 적자 때문이다. LG전자 MC사업본부는 2015년 2분기 이후 2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적자는 5조 원 규모에 달한다. 자원 운영 효율화, 글로벌 생산지 조정, 혁신 제품 출시 등 최근 몇 년 동안 이뤄진 사업구조 개선도 그다지 성과가 좋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도 야심 차게 내놓은 전략 제품 '윙'이 시장의 외면을 받으면서 2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와 애플, 화웨이 등 선두 기업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사업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스마트폰은 단순 통신 기기가 아닌 LG전자의 중요 차세대 사업군인 가전과 자동차 등을 연결하는 톨로 역할을 하는 제품이란 점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 등 핵심 부문을 제외하고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스마트폰 사업 재검토로 최근 막을 내린 전자전시회 CES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새로운 폼팩터(하드웨어 형태)폰 '롤러블'의 출시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제주삼다수, 친환경 투명페트병 업사이클 사업 확대

효성티앤씨·노스페이스와 MOU 체결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가 투명페트병의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노스페이스(영원아웃도어), 효성티앤씨와 함께 자원순환을 위한 4자간 업무 협약을 맺었다. 제주개발공사가 지난해

부터 추진 중인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 프로젝트 일환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제주도내에서 직접 수거한 페트병 100여톤을 고품질 재활용 생산재료로 효성티앤씨에 공급해 '리젠제주(regen@jeju)' 재생섬유로 변모시킨다. 개발된 업사



다. 제주도내에서 수거한 페트병을 활용한

이클링 섬유는 영원아웃도어가 생산하는 노스페이스 의류 및 가방, 용품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제주도내에서 수거한 페트병을 활용한

노스페이스 제품은 2월 출시될 예정이며 제품 내 제주삼다수 로고를 비롯한 환경적 메시지가 포함된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단순한 의류제품을 재활용으로 개발하는 것 이면에 자원의 가치와 지구 환경을 위한 자원 순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환경 경영을 적극 실천해 플라스틱 저감 운동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